

# 運氣學의 三陰三陽과 周易 乾卦 六爻의 相關關係에 대한 研究

朴贊國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hree *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of *Unki* theory(運氣學) and the *Geon* divination sign(乾卦) of *Iching*(周易)

Both of the three *Um* and three *Yang* and the six *hyo*(六爻) of *Iching* are based on *Um* and *Yang* theory and five phases theory. This paper is about mutual relation of them.

First, every change in the universe is induced by *Un* and *Ki*. *Un* is the nature that things have their own. *Ki* is surroundings that things change in.

Second, *Un* and *Ki* are not separate things. That is they are generated by each other.

Third, both of them are the signs of change which means they are similar. The first *Hyo* (初爻) and *Kwolüm-pungmok*(厥陰風木), the second *Hyo*(二爻) and *Soüm-gunhwa*(少陰君火), the third *Hyo*(三爻) and *Teüm-süpto*(太陰濕土), the fourth *Hyo*(四爻) and *Soyang-sanghwa*(少陽相火), the fifth *Hyo*(五爻) and *Yangmyung-zogüm*(陽明燥金), and the sixth *Hyo*(六爻) and *Teyang-hansu*(太陽寒水) have similar principles.

It is important to make clear up their meanings and mutual relation.

Key Words : unki theory(運氣學), geon divination sign(乾卦), six *hyo*(六爻), three *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접 수 : 2000년 9월 19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박찬국,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2-961-9183, chulian@netian.net)

## 1. 序論

우리는 흔히 동양철학은 周易에서 나왔고 한의학은 동양철학을 기본이론으로 하여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周易은 原文만 보면 陰陽五行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또 애초에 周易은 글은 없고 오직 圖만 있었다고 한다. 즉 先天圖, 後天圖와 卦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 圖들을 가만히 보거나, 六爻를 보면 모두 陰陽五行을 그 기본이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六爻는 한의학의 三陰三陽과 아주 유사한 바가 많다. 우선 六이라는 수에서 일치하고 있고 모두 陰陽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六爻는 陰陽이 定하여져 있지 않은 반면에 三陰三陽은 그 안에 六爻와 五行을 배속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즉, 初爻는 음이나 양이 모두 될 수 있는 반면에 一陰은 반드시 厥陰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一陰인 厥陰을 厥陰風木이라 하여 陰陽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三陰三陽이 六爻에서 나왔다는 것도 楊力<sup>1)</sup> 등이 언급하고 있다. 단지 너무 피상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에 論者が 보다 구체적으로 六爻와 三陰三陽의 관계를 論하여 보고자 한다.

## 2. 運氣와 變化

事物의 變化를 그저 막연하게 본다면 그 變化를 把握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法則을 안다면 變化를 쉽게 이해하고 아울러 未來의 일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점 때문에 周易이 發達하였고 韓醫學에서는 運氣學이 발달하였다.

周易은 卜者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여 점을 치는 것이고 運氣學은 앞으로 어떠한 氣候變化가 있을지를 예측코자 하는 것이다.

여하튼 모두 變化를 파악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變化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많은 變化 중에서 어떠한 變化를 예측한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즉, 變化란 모든 사물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周易에서는 個個가 처한 상황을 점치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우선 變化란 어떤 主體의 變化와 그를 둘러싼 客體의 變化가 어울려야 비로소 變化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에서는 主體가 卜者이고 運氣學에서는 지구가 되는 것이다.

물론 運氣學에서 大運을 말할 때는 단순히 지구의 運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運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運과 氣의 관계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혼자 살다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여 처자를 두게 되었다. 이 사람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생활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한 것은 스스로의 運에 의한 變化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자가 생기어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變化를 강요하는 것은 氣가 變化를 일으킨 것이다. 또 한 나무를 들면 나무가 자라면 밑에 낙엽이 쌓인다. 이 나무는 이 낙엽이 썩어 생기는 거름을 먹고 자란다. 단 나무는 거름을 먹고 무성하게 자라서 더 많은 낙엽을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運은 氣를 만들고 또 氣는 다시 運을 만들고 있다. 물론 더 복잡하게 따져서 생각할 수 있다. 요는 運과 氣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면서 서로는 서로를 낳으면서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도 運氣가 變化를 일으키는 요인이고 이들이 상관관계 있음을 말했는데 보다 더 깊이 그 관계를 말해보자.

## 3. 運과 氣의 상관관계

그러면 運과 氣는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생각하여 보자. 어떠한 조그만 단체를 만들면 반드시 그 단체를 운영할 규칙을 만든다. 그리하여 그 규칙대로 단체

1) 楊力 저, 김충렬 등 번역: 주역과 중국의학. 서울, 법민문화사. 1993. 123~124p.

를 운영하지만 주위 환경이 바뀌면서 규칙은 運에 해당되고 주위환경의 변화는 氣에 해당된다. 즉, 애초에 규칙을 만들 때도 주위환경을 생각해서 규칙을 만든다. 회비를 거둘 때 회원들이 부유하면 많이 거두지만 회원들이 가난하면 조금씩 거둔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회비를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또 전체 회비를 걷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일단 얼마씩 회비를 걷기로 결정을 해 놓으면 회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거의 강제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곧 運과 氣가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法治國家이다. 모든 것을 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즉 法이 바뀌면 세금도 더 내고, 퇴직도 일찍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뀌려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國會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法에 의한 통치라고 하지만 결국 國民의 의사에 따른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이 바뀌면 모든 變化가 일어나지만 결국 국민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運氣學에서 運과 氣가 바뀌어 氣交之間에 있는 萬物에 變化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萬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運氣도 결국 만물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萬物은 天地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天地萬物은 스스로 運氣를 만들어 스스로의 變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 4. 六爻와 運氣

六爻는 결국 한 순간의 상황을 陰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爻의 陰陽을 가리기에 앞서 爻의 位가 있다. 즉 初, 三, 五는 陽位이고 二, 四, 六은 陰位이다. 여기서 陰陽의 位가 결정되는 것은 氣의 發揚과 收斂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氣가 發揚되면 계속될 수 없고 반드시 음의 작용으로 收斂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氣는 먼저 發揚되고 收斂이 따르고 또 發揚

되고 收斂이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發揚과 收斂이 반복되면서 初에서 五爻까지는 氣가 늘어나다가 五에서 부터는 氣의 量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初, 三, 五는 陽이라는 運을 타고났지만 外部 氣의 영향으로 陰으로 나타날 수 있고, 二, 四, 六은 陰의 運을 타고났지만 外部 氣의 영향으로 陽것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初, 三, 五가 陽爻이면 자기의 運을 펼 수 있는 때이므로 좋지만, 반대로 陰이면 運을 펴지 못하므로 좋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二, 四, 六이 陰爻이면 자기의 分數를 지켜서 좋겠지만 陽爻이면 자기의 分數를 지키기가 어려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運氣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초봄에 陽氣가 生하여 風木之氣가 內에서 生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고, 또 늦은 봄에 君火가 主官하여 몸을 길러야 할 때 相火가 성하여지면 몸을 길러지 못하고 도리어 津液을 消燦할 것이 분명하다. 한 여름이 되면 君火에 依하여 길러진 濕土가 몸을 활짝 열어 外部의 陽氣를 흠뻑 받아들이므로 비록 安定되지는 못하나 일을 많이 하는 때이므로 乾의 九三에서 君子終日乾乾이라 하였다. 易의 四爻에 해당되는 少陽相火는 사실 陰이어야 하는데 다시 陽인 相火가 들어 왔다. 사실은 陰이므로 肅殺之氣가 들어와야 하는데 太陰에서 많은 氣의 흡수와 자라난 陰을 갑자기 죽여서 썩거기를 그냥 처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비록 더 이상 자신을 열어 외기를 흡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흡수한 氣를 처리하기 위한 陽氣가 필요하므로 다시 相火가 들어온 것이다. 즉, 앞의 厥陰 風木에서 相火는 生長을 위한 相火이므로 陽에 속하지만 少陽相火는 殺藏을 위한 相火이므로 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易의 五爻에 해당하는 陽明燥金은 陽明은 陽이지만 燥金은 陰이다. 相火에 비하여 燥金은 이미 陽氣의 藏을 시작하였으므로 氣가 豊富하다고 볼 수 있다. 즉, 氣가 아직 완전히 含藏되지도 않고 겉에 있는 때이므로 마치 가을에 벼를 수확할 때처럼 기가 풍성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人體에 비유하면 津液과 氣의 密度가 가장 높은 때라고 볼 수 있다.

上爻는 太陽寒水에 해당되는데 겉으로 陽은 盛하지만 이미 陰氣가 모두 쇠하여 陽氣가 居할 곳이 없고 모두 水가 盛한 內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그러므로 다음을 기약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陽氣가 다 衰하여 亢龍有悔가 될 수밖에 없다.

## 1) 初爻와 厥陰風木

乾卦에서 初九를 潛龍勿用이라 한 것은 비록 陽氣가 生하였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쓰기도 부족하므로 그 生한 氣를 쓰지 못하도록 경계한 것이다. 즉 쓰지 못하게 한 것은 外部에 쓰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데 쓰라는 뜻이다. 運氣에서 厥陰風木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다. 비록 속에서 風木의 작용으로 陽氣가 生하였지만 아직 그 세가 약하고 厥陰은 이제 겨우 생겨난 어린 새에 불과하므로 外部에서 아직 기를 벌어들일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짧고, 오그라들고, 모자란다는 뜻의 厥字를 쓴 것이다. 시절로 보면 厥陰은 초봄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비록 陽氣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겨우 그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쓸만한 시기가 못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 고사리손을 가진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때는 아직 陽氣도 겨우 부모에게서 받은 先天의 精에서 發生한 것에 불과하고 몸도 즉 形도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하여 外部로부터 氣를 받아들여 精을 만들고 또 精으로부터 陽氣를 發生시킬 能力이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아직 精力이 모자라 큰 힘을 쓸 수가 없다.

坤卦初爻에서 履霜 堅冰至라 한 것도 역시 陰이 生成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陰이 자라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즉 履霜은 이러한 과정 즉 아직 충분히 陰이 자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충분히 자란, 즉 直方大한 陰이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급히 서둘러 履霜의 과정을 겪지 않거나, 또 潛龍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風木之氣가 盛行하여 相火가 君火를 능멸하여 음양의 기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도래될 것이다. 運氣에서 厥陰風木은 少陰君火로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易의 初爻는 二爻로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厥陰風木을 八卦로 표현하면 木은 ≡震卦에 해당되고 풍은 ≡巽卦에 해당될 것이다. 震은 땅에 처음 양기

가 생기는 것인데, 그 이전에 風이 먼저 있어야 한다. 즉, 巽은 ≡乾卦에서 初爻가 음으로 바뀐 것으로 水속에 潛藏되어 있던 陽氣가 흘러져 陰으로 변하면서 陽氣가 밖으로 발산된 것이다. 즉 風이 先天의 陽氣를 깨뜨려 後天의 震卦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厥陰風木에는 相火의 象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厥陰風木의 작용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바로 厥陰이 初爻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內經이전에 11脈說에서는 手厥陰心包經이 빠져 있는 것이나 肝의 病이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2) 二爻와 少陰君火

乾의 九二에서 見龍在田이라 한 것은 이미 陽氣가 밖으로 드러난 것은 말한다. 즉, 運氣에서 君火라고 쓰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이다. 厥陰風木에서는 비록 陽氣가 發生하였다고는 하지만 단지 그 存在를 인정할 뿐 아직 그 작용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相火의 象은 있지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少陰君火에 들어오면 엄연히 陽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陰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陽의 기운을 감내할 수도 있으므로 少陰으로 表現하고 있다.

물론 양과 음이 모두 어느 정도 자라났지만 아직 太陰이나 陽明 등과 비교하기엔 이르다. 少陰은 어느 정도 形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아직 살지 못하였으므로 陰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였고, 陽은 陰이 자란 후에 다시 기를 벌여 채워야 하는 것이므로 陰보다 더욱 모자랄 수밖에 없다. 단지 君火라 함은 임금에 명령을 내리면 百姓들이 이를 시행하여 產業을 일으키듯이 단지 그 方法만을 밝혀줄 뿐인 것이다.

즉, 君火가 밝혀놓은 方法과 設計圖를 가지고 陰도 키우겠지만 陽은 더욱 氣를 많이 벌여 津液을 만들고 나아가 精氣도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見龍在田에서 田은 곧 삶의 현장을 말한다. 龍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지식을 쌓아 앞으로 어떻게 事業을 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다. 모든 方法과 그 設計圖를 九二에서 마친다는 뜻이다. 물론 그와 아울러 자신의 능력도 배양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內經에서 봄에 해당되는 肝을 將軍之官으로 謀慮出

焉이라고 한 것이나 膽을 中正之官으로 決斷出焉이라고 한 것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內容이다.

그러면 少陰君火를 卦로 表現하면 무슨 卦에 해당했는가? 아마 少陰은 ≡坎卦에 君火는 ≡離卦 해당될 것 같다. 즉 겹으로는 陰이 形體를 갖추어 드러나고 속에는 陽氣가 있어 자신을 運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의 水는 차가운 水가 아닌 흐르는 냇물이나 빗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즉 太陽寒水같이 陽氣를 꼭꼭 갈무리하는 얼음같이 차가운 水도 있고 陽氣를 간직하여 萬物의 滋養에 힘쓰는 雨水나 川水같은 水도 있고, 또 濕氣처럼 간직한 陽氣가 너무 많아 水의 성질보다 오히려 火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水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少陰의 水는 太陰의 濕처럼 감당치 못할 만큼의 陽氣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陽氣를 받아 水의 活動이 부드럽고 氣의 放出이나 收斂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運氣에서 少陰君火라하고 易에서 見龍在田利見大人이라하고 九五를 君으로 본 것은 어찌서인가? 運氣에서 少陰君火라 한 것은 天의 火를 사람이나 萬物이 받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고, 易의 六爻에서는 五爻를 君位로 본 것은 初爻에서 점차 자라 五爻가 되어야 그 氣가 實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運氣에서 少陰을 君火에 배속한 것은 선천적인 理를 중심으로 말한 것이고 易에서 五爻를 君位로 본 것은 後天的인 氣를 중심으로 말한 것이다.

### 3) 三爻와 太陰濕土

三爻와 太陰濕土는 사람에 비유하면 가장 成長이 旺盛한 시기이고 나무에 비유하면 나뭇잎이 가장 무성한 시기에 해당된다.

易의 乾卦九三의 爻辭에서 君子終日乾乾이라 한 것은 九三의 위치에서 그만큼 활동을 열심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運氣에서 太陰은 陰이 가장 크게 자란 시기이고, 또 內的으로 濕土는 비록 濕이긴 하지만 君火시절부터 陽氣를 받아 지금은 陽氣가 꽤 성하여 氣의 出入이 매우 자유로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太陰濕土는 內外로 그 活動이 왕성하고 外로부터 많은 量의 氣를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또 이 때에 氣를 많이 받지 않으면

次後에 그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할 일이 많고 밖에서 많은 量의 氣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 그 氣가 成熟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느릴 수는 없다. 太陰은 음으로서 이미 다 자라서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고 또 外로부터 많은 量의 氣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운 位置이다. 그러므로 乾卦九三에서 夕惕若이라 하였다. 惕若이라 함은 앞으로 계속 陰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陽으로 전환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급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라던지, 또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회의 진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겪는 일과 유사한 상황이다.

여하튼 太陰이나 三爻는 그 位置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일대 전환을 해야하는 시기이다. 즉, 지금까지 外部에서 받기만 하던 受動的인 位置에서 이제는 外部로 베풀어야 하는 能動的인 位置로 바뀌어야 한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충실에 열성적이어야 하겠지만 자신을 낮추고 주위의 사정도 살펴보는 조심스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坤의 六三에서 含章可貞이라 한 것도 바로 太陰의 氣의 흡수력을 가리키고 있다. 보통의 陰, 즉 厥陰이나 少陰이 章을 含하였다면 貞하기가 어렵다. 章은 빛나는 문채를 말하는데 문채가 나는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사람이 정숙하기 어려운데 太陰은 陰이 크게 자라났으므로 문채 나는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도 정숙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八卦에 배속하면 濕土는 ≡兌에 해당되고 太陰은 ≡坤卦와 흡사하다. 兌도 水이긴 하지만 이미 陽이 크게 자라 陽氣를 藏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겉으로 太陰이 크게 자라 아직 陽氣의 흡수 능력이 많은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는 외부와 氣의 交流가 빈번하고 스스로 氣도 많이 버는 때이다.

### 4) 四爻와 少陽相火

三爻까지가 內卦로서 陰이라면 四爻부터는 外卦로서 陽에 속한다. 그러므로 四爻는 陽의 처음으로 初爻와 相應하는 위치에 있다. 初爻가 先天에서 後天으로 발생하는 단계라면 四爻는 三陰인 太陰에서 一陽인 少陽으로 변하는 시점인 것이다. 卦 전체로 보면 四는 上等給

에 속하지만 陽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陽에 불과하다. 乾의 九四에서 或躍在淵이라 한 것이나, 坤의 六四에서 括囊이라 한 것은 모두 陽位에 있던 하지만 아직 微弱하여 用事하기에 적합하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물론 相火라 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陽明을 도와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相火라는 이름을 붙였다.

三陰에서 君火는 相火와 달리 主導的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의 相火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少陰의 君火는 陰 속의 火이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탄처럼 가지고 있는 열량은 높지만 불붙기 어려운 물질이 타고 있는 것 같은 것이고, 少陽의 相火는 열량이 낮지만 불붙기 쉬운 마른 나무가 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연탄은 어지간해서는 혼자 타게 내버려두어도 불이 번지거나 성해지지 않겠지만, 마른 나무는 쉽게 불이 번지고 성해질 위험이 있다. 즉 少陰의 君火는 계속 타면서 三陰의 生理를 주도하지만 少陽相火는 조금타고 陽明이나 太陽을 보조하는 선에서 그 기능을 한정하여야 한다.

易에서 四爻를 臣位로 보는 것이 바로 相火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四는 이미 外卦에 있으므로 受하기 보다는 施하여야 할 위치이므로 많은 일을 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成就하지 못하였으므로 五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陽明은 이제 완전히 成就하여 君子의 道明德立한 때이므로<sup>2)</sup> 스스로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이다. 또한 傷寒에서 모든 病이 陽明으로 들어오면 다시 전변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sup>3)</sup>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相火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실 丹溪가 말하였듯이 人體 生理의 대부분은 거의 相火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腸에서 음식물이 消化, 吸收되는 것이 모두 陽明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은 陽明의 하는 일이 아니고 少陽이 하는 일이다.

즉, 옛날에 臣下가 열심히 일을 하면 모든 功이 왕에게 돌아가듯이 少陽의 하는 일은 모두 陽明에게 공이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왜 消化가 少陽이 하는 일

인가?

음식물은 陰이다. 이 陰을 소화시키려면 陽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太陰을 陽으로 少陽이 바꾸듯이 이 飲食物도 역시 少陽이 陽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 少陽이 飲食物을 陽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陽明은 여기에서 氣를 취하여 津液을 만든다. 즉 애는 少陽이 쓰고 功은 陽明이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少陽相火를 八卦에 배속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厥陰風木과 유사하므로 ≡坤에서 一陽이 生하는 ≡震과 ≡乾에서 一陰이 生하는 ≡巽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 5) 五爻와 陽明燥金

五爻는 앞에서 누차 말한 바와 같이 君位에 해당된다. 陽明은 燥金의 運氣를 받아 생겨난 것인데 어디에 君의 象이 있단 말인가? 陽明은 三陰三陽의 변화 중에서 유독 氣血이 모두 성한 곳이다. 太陰도 陽明과 表裏가 되는 곳으로 氣血이 盛하기는 하나 아직 成熟도가 陽明에 미치지 못한다. 陽明은 陽이 盛하여 陰이 부족한 감이 있으나 속에서 燥金이 잘 承한다면 충분히 陰陽의 均衡을 맞추어 갈 수 있다. 內經에서 肺를 秋에 配屬하고 肺를 相傳之官으로 말하고 仁義禮智의 五行配屬에서 義를 金에 배속하는 것 등은 모두 金에서 陽明이 지나치게 盛함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陽明은 兩陽合明이라 한 것은 先天的으로 타고난 陰氣가 이제 모두 소모되면서 陽으로 化하였고 後天的으로 얻은 氣도 相火를 거처면서 모두 陽火되었기 때문에 陽明이라 한 것이다. 즉 朱子가 四十을 道明德立之時라 한 것도 先天的으로 받은 道가 四十에 이르면 밝아지고 後天的으로 얻은 德이 四十이 지나면 化하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더욱 쉽게 말한다면 가을이 되어 곡식이 황금빛으로 익는 것도 이와 같은 先天的인 運과 後天的인 氣가 성숙하여 어우러져 생겨나는 현상의 하나이다.

易에서 乾의 九五에서 飛龍在天이라 하여 天을 언급하고 坤의 六五에서 黃裳이라 하여 땅의 상징인 黃色을 언급하였다. 이는 바로 初爻에서 얼크러졌던 天氣와 地氣가 五爻에서 다시 分離되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즉 內經, 四氣調神大論에서 秋의 氣를 容平이라 表

2) 맹자: 맹자집주. 서울, 명문당. 1988. 119p.

3)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일중사. 1992. 207p.

現한 것이 바로 陰陽이 얽혀서 用事하면서 다투다가 서로 화합하여 분리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四時의 變化를 보면 불이 되면 모든 生物이 깨어나면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진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데 바로 이것이 君의 象인 것이다. 밑에서는 얽혀서 어렵고 소란스러웠던 것들이 君에 오면 서로 화합하고 조용하게 해결이 되어버린다. 물론 君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道明德立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陽明燥金을 八卦에 비유하면 바로 乾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6) 上爻와 太陽寒水

上爻는 陽이 가장 盛한 위치에 있지만 乾의 上爻에서 亢龍有悔라 하여 이미 氣가 衰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坤의 上六에서도 龍戰于野 其血玄黃이라 한 것을 보면 上六은 氣가 盛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坤은 陰이므로 陰이 虛해져서 陽이 亢盛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陽은 亢盛하면 氣가 衰해지고 陰은 亢盛하면 潛藏시키는 陰氣가 衰하여 陽氣가 위로 熾盛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대개 젊은 時節에는 夫婦之間에 男便이 주도권을 행사하다가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면 부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陽기가 衰하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서 陰氣가 쇠하면서 陽氣가 점차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太陽은 가지고 있던 陰氣가 모두 陽化되어 일시적으로는 기가 많지만 오래 건달만한 자원이 없다. 단지 속에 寒水가 있어 太陽의 陽氣를 속으로 간직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當代만 생각한다면 上九나 上六처럼 陽氣와 陰氣가 쇠잔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상한론에서 仲景先生이 모든 外感病이 太陽을 통하여 들어온다고 본 것도 바로 太陽의 陰陽之氣가 모두 쇠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太陽寒水를 八卦에 비유한다면 ≡艮卦나 ≡兌卦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 5. 結語

一. 東洋哲學과 韓醫學에서는 모든 變化는 事物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運과 外部의 要因인 氣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一. 運과 氣는 서로 別個의 것이 아니고 運은 氣를 생성하고 氣는 또 運을 생성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一. 易의 六爻와 運氣學의 三陰三陽은 사물의 변화를 표시하는 방식의 하나로 매우 유사한 것들이다. 즉, 初爻와 厥陰風木, 二爻와 少陰君火, 三爻와 太陰濕土, 四爻와 少陽相火, 五爻와 陽明燥金, 上爻와 太陽寒水가 서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유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단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들을 서로 연관시켜 상호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程頤 朱熹: 周易傳義 二以會 影印, 1981.
- 2) 黃帝內經
- 3) 北京中醫學院 / 中醫各家學說講義 / 醫藥衛生出版社, 1968.
- 4) 孟子集註. 서울 명문당, 1988.
- 5) 楊力 저, 김충렬, 홍원식 등 역: 주역과 중의학. 서울, 법인문화사, 1993.